

# 신안 기점·소악도 손님맞이 준비 끝

한국의 산티아고 평가 받아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신안 기점·소악도가 각종 건축미술 작품과 미술식당, 게스트 하우스 등 기초시설을 마무리하고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23일 신안 기점·소악도에서는 순례자의 섬이라는 주제로 '섬 여는 날' 행사가 열렸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

까지 '가고 싶은 섬' 16곳을 선정해 주민이 살고 싶고, 여행자가 가고 싶은 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강진 가우도,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완도 생일도 등 8개 섬이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이 날 기점·소악도가 아홉 번째 행사를다.

행사는 김영록 도지사와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 기점·소악도 출향 행우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점·소악도는 병풍도의 새끼 섬이다.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섭 등 4개 섬으로 이루어져 노

듯길로 하나가 되는 섬이다.

또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섬 모양이 기묘한 점 모양의 섬이어서 '기점도'라기도 하고, 섬 사이를 지나는 물소리가 크다 해 '소악도'라 불린다.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드러나는 노둣길로 이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전남도는 2017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해 각 종 관광시설 보완에 나섰다.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점과 종도면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여성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와 관련된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연계한 '순례자의 섬'으로 주제를 정했다.

이어 2년여에 걸쳐 주민과 함께 스페인의 산티아고 같은 아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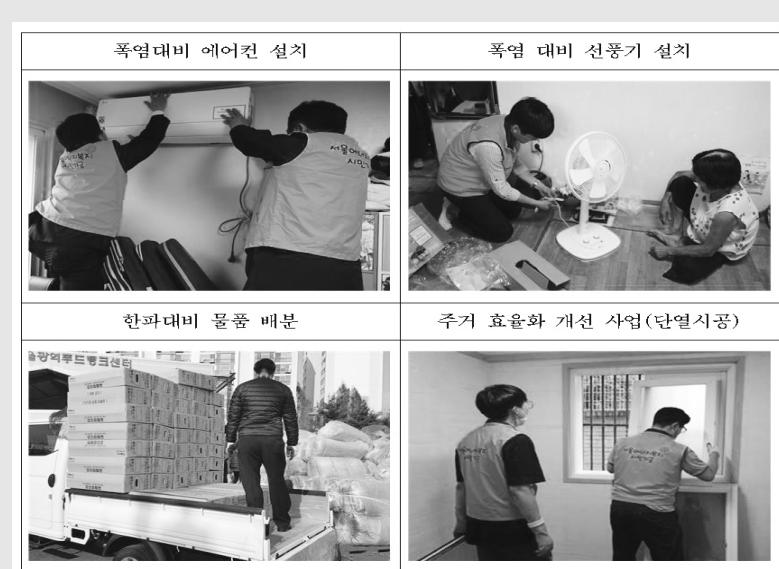
'기적의 순례길'을 만들었다.

12km의 순례길을 따라 섬 곳곳에 조그마한 건축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작은 예배당은 호주의 유명 관광지인 그레이트 오션로드의 12사도 바위, 그리스 산토리니의 풍광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명품 관광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순례자의 섬이라는 콘텐츠를 갖춘 기점·소악도가 세계적으로 대박나는 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부터 주민 주도형 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총 24개 섬을 시범 벌집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섬으로 가꿀 계획이다.

뉴스1



##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모금 20억 달성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후원자 및 봉사자,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에너지복지 나눔 대상'을 시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2만 여명의 시민의 후원으로 71억원이 모금돼 23만 4000가구를 지원했다. 해마다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모금액은 총 20억원이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 기금이다.

한편 서울시는 에너지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가온(多家溫) 서울' 온라인 모금함을 운영한다. '카카오 같이가치' 웹페이지에서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검색하고 모금함 공유, 댓글 등에 참여할 때마다 1건당 2000원이 기부된다.

## 충남도, '로컬푸드 광역직거래 센터' 설치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광역직거래 센터'를 설치하고 새로운 유통모델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시군 단위의 소규모 직매장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광역단체가 직접 직거래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시례는 충남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충남도 광역직거래센터 현지에서 '충남도 광역직거래센터 개장 기념식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박남신 논산부시장, 농협충남본부 관계자, 소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 및 현관 제막식,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소한 광역직거래센터는 지역생산 농·특산물의 인정적

판매기반 마련과 함께 시군단위 소비 한계를 뛰어넘는 '신 유통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구축됐다.

총사업비 21억 60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광역센터는 직매장(1층), 로컬카페(2층), 농가레스토랑(3층), 다목적공간(4층)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임시 개장된 이후 도내에서 생산되는 500여 품목을 공급 중이며 하루 평균 2000만원, 10월 말 기준 34억원의 총매출을 기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광역센터는 농·특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생산자에게는 인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유통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뉴스1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같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자등록증